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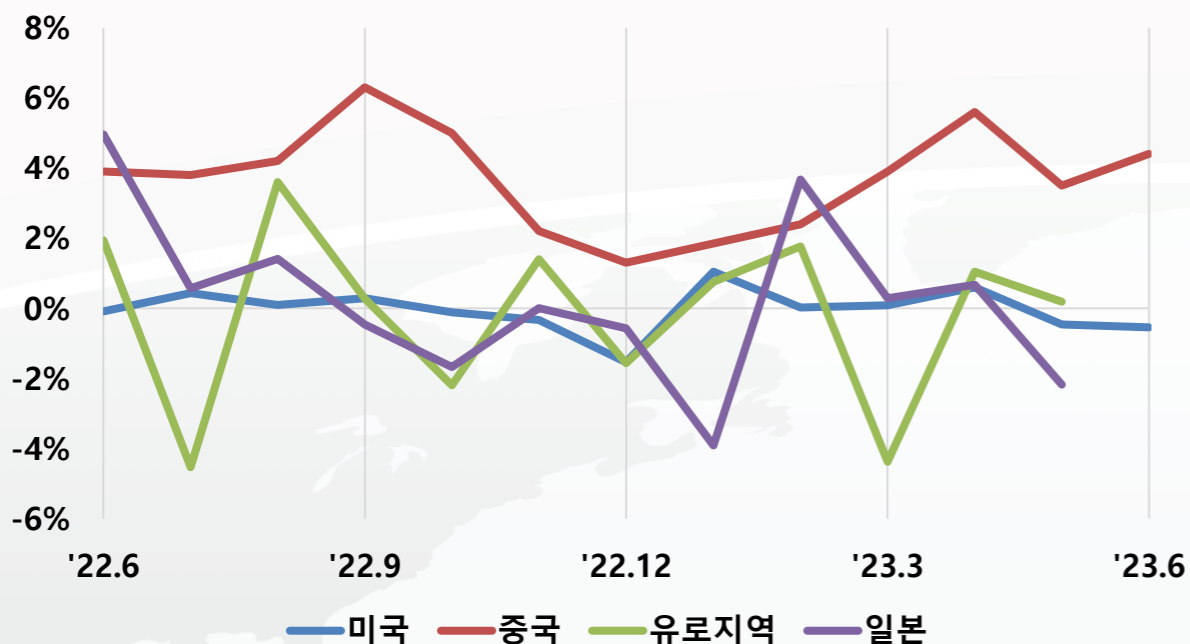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소비자 물가도 안정화되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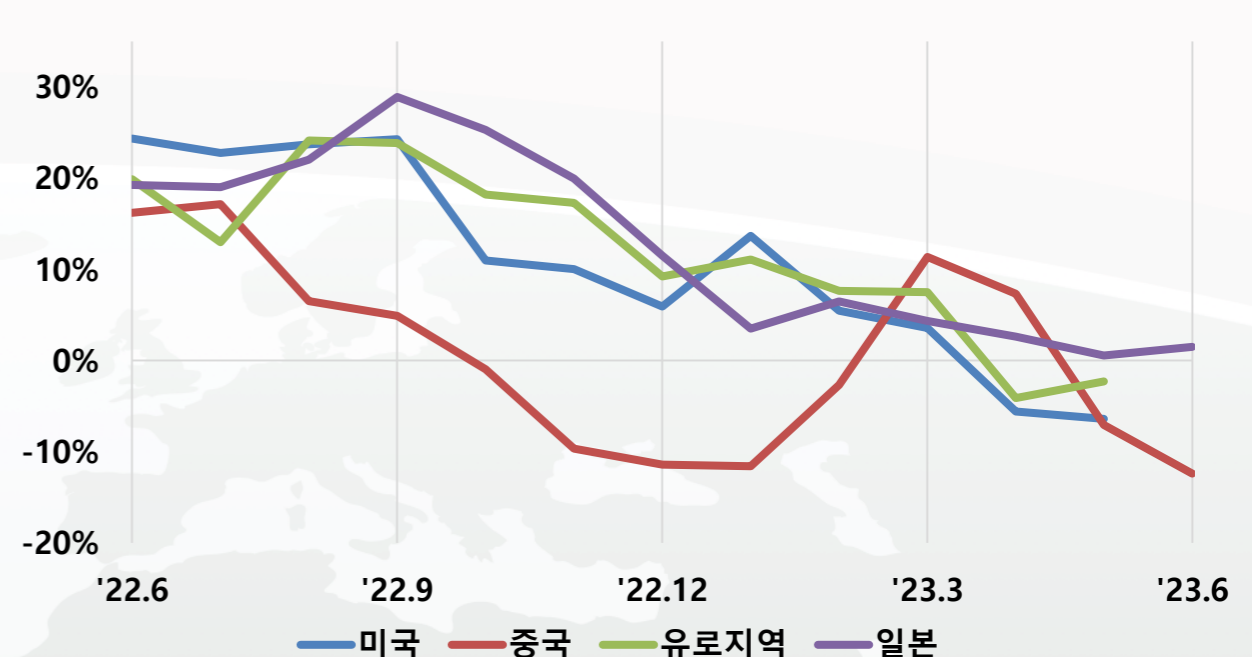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소비자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지표 혼조세**
 - 6월 산업생산($\Delta 0.54\%$)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, 소매판매(+0.2%)는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
 - 6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+20.9만명)은 전월(+30.6만명) 대비 하락했으나 실업률(3.6%)은 소폭 하락
 -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 +3.0%로 전월(+4.0%)대비 하락, 근원물가 상승률도 +4.8%로 전월 대비 0.5%p 하락
- **(중국) 소비, 투자, 수출 등 전반적인 지표 부진 등 경기개선 지연**
 - 6월 산업생산 증가율 +4.4%(전년동기 대비)로 전월(+3.5%) 대비 상승,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+3.0%(전년누계비)로 지속적 하락
 - 6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3.1%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월(+12.7%)대비 크게 하락,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.4% 감소
- **(유로존) 고물가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지연 지속**
 - 5월 산업생산이 고물가(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.1%), 고금리 등으로 전기 대비 +0.2%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 지속
 - 유로존 6월 제조업 PMI는 43.4로 전월(44.8) 대비 하락하며 기준치(50)을 크게 하회
- **(일본)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제조업 부진 지속**
 - 5월 산업생산 증가율 전월 대비 $\Delta 2.18\%$ 감소, 6월 수출(엔화 기준)도 전년동기 대비 1.5% 증가에 그치는 등 제조업 경기 부진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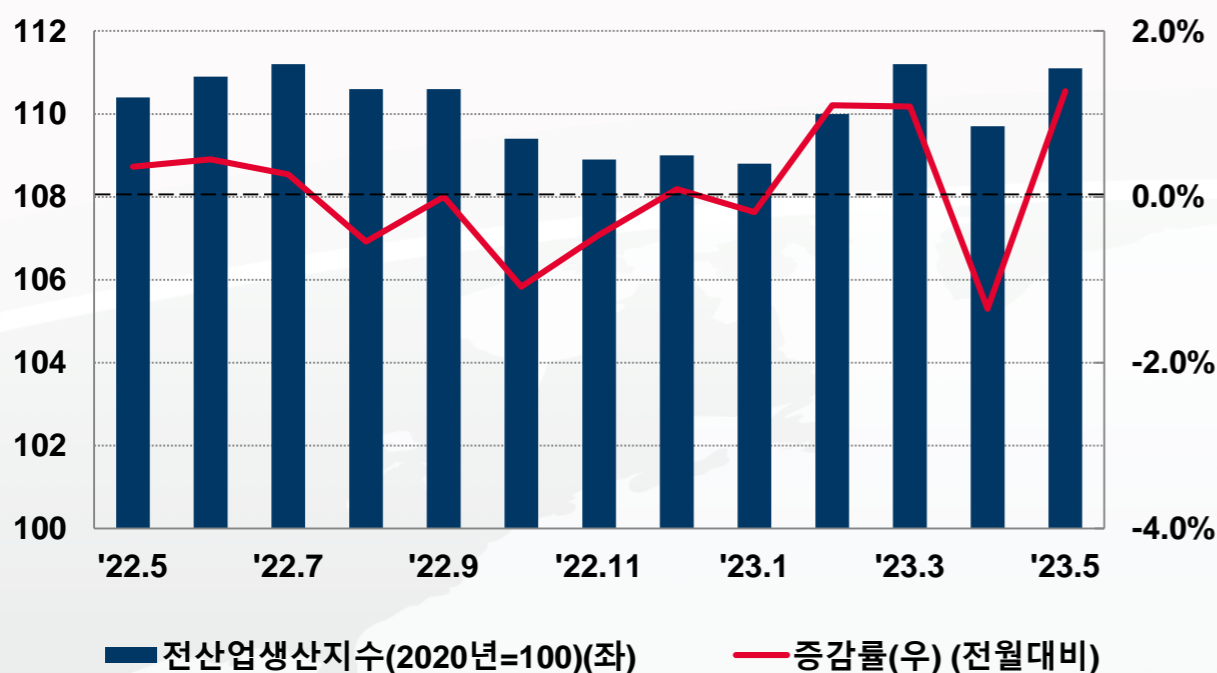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생산은 광공업 증가,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전월과 보합

- (생산) 5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줄었으나 광공업, 건설업에서 늘어 전월 대비 1.3% 증가
 - (광공업 : +3.2%) : 통신·방송장비(Δ 16.9%) 등에서 줄었으나, 자동차(+8.7%), 반도체(+4.4%) 등에서 증가
 - (서비스업 : Δ 0.1%) : 전문·과학·기술(+3.2%) 등에서 늘었으나, 금융·보험(Δ 4.1%), 숙박·음식(Δ 4.5%) 등에서 감소
- (경기)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4p)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했으나 수입물가 하락, 코스피 상승 등으로 전월과 보합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으로 감소세 지속, 감소폭은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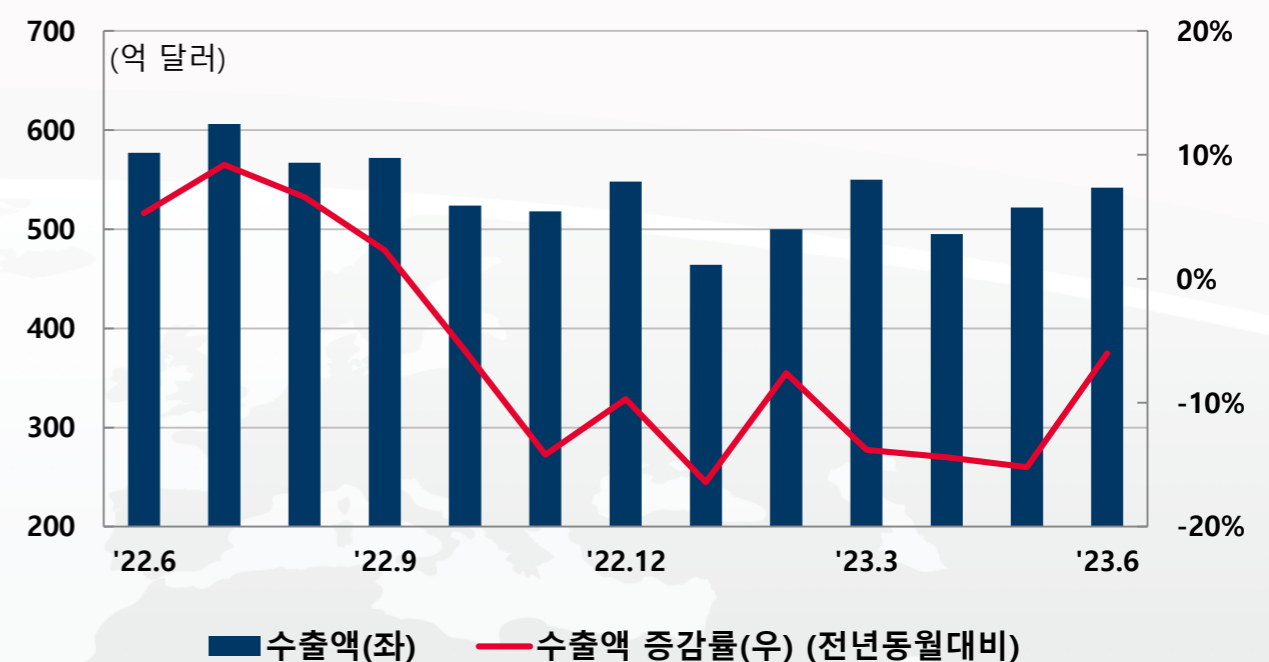
- 6월 총수출은 54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Δ 6.0%), 무역수지(+11.3억 달러)는 흑자 전환
 - IT 업황 회복 지연,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중국(Δ 19.0%), 아세안(Δ 16.6%), 미국(Δ 1.8%) 등은 감소, EU, 중남미 등은 증가
 - 자동차(+58.3%), 일반기계(+8.1%), 선박(+98.6%) 등은 증가, 반도체(Δ 28.0%), 석유화학(Δ 22.2%) 등은 단가하락 영향으로 감소 지속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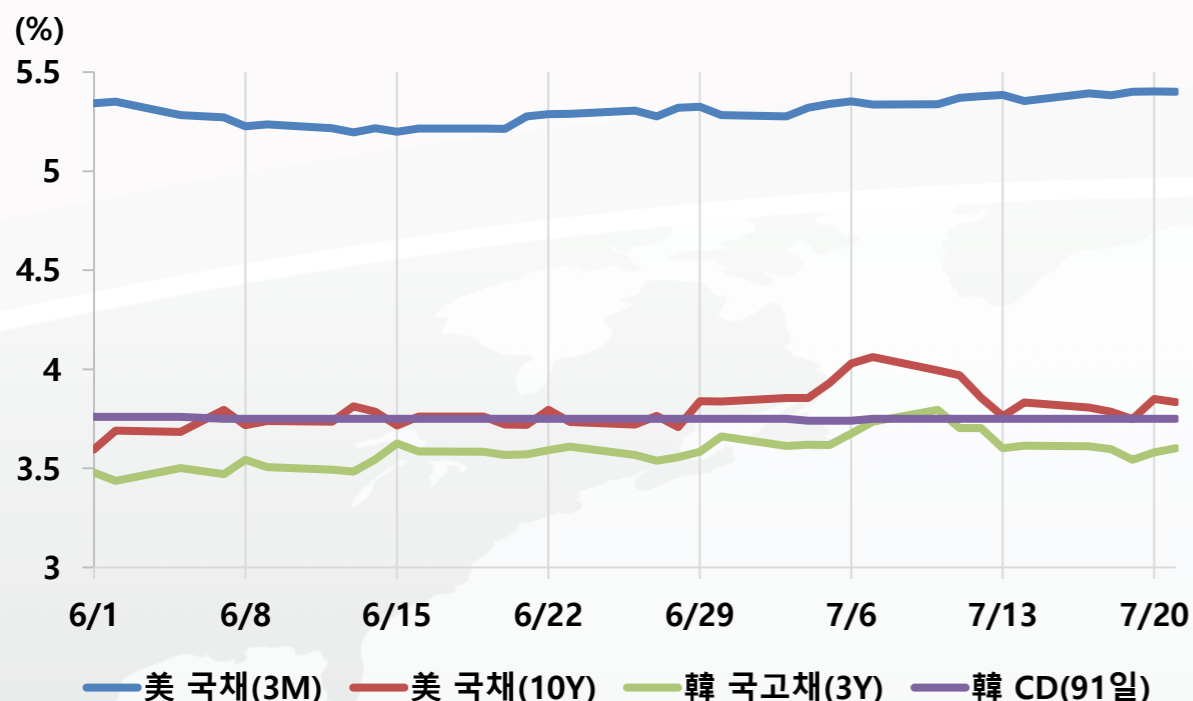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물가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되면서 상승 후 소폭 하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고용지표 안정세 등으로 7월 중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며 3.8% 수준에 육박했으나 이후 6월 소비자 물가 하향 안정세 등으로 소폭 3.5%대로 소폭 하락
- 단기물인 미국채 3개월물은 5.2%대로 소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며 5.4% 기록(7/21)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채 수익률에 동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3.8%대로 상승한 이후 3.5%대로 소폭 하락

■ 환율 : 미국의 금리정책 방향 전망에 따른 미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 반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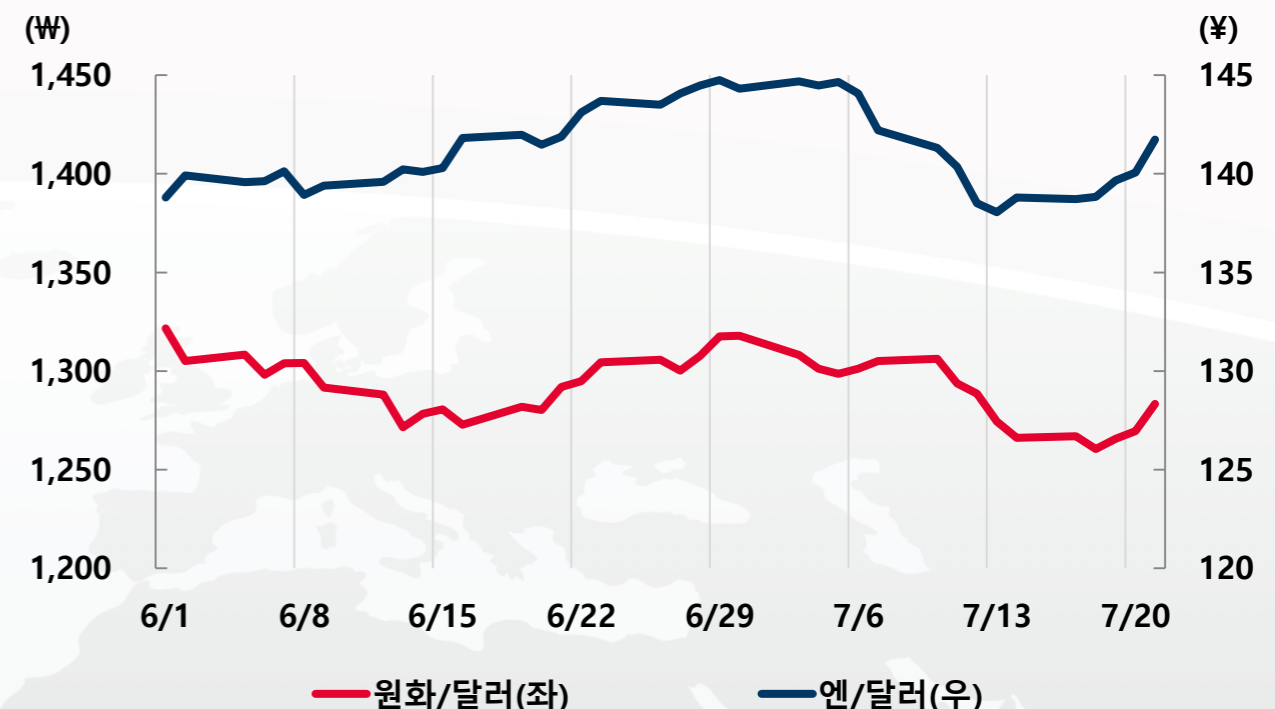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등으로 1,317원/달러(6/30)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미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,260원/달러 기록(7/18) 후 소폭 상승
- (엔/달러 환율) 엔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글로벌 강세 및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유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145엔/달러 대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여 141엔/달러 수준 유지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,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불안 우려와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상승

- (원유) OPEC+ 감산규모 확대, 미국 석유 시추리그 수 감소 등 공급 불안 우려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,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등으로 7월 중순 배럴당 80달러 돌파(두바이유 \$81.97/bbl, 7/14)
 - 7월초 사우디,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추가 감산 결정으로 OPEC+ 감산량이 세계 수요의 5%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가운데, 노르웨이 Equinor의 북해 유전 원유 생산중단, 7/7일 주간 미국 석유 시추리그 수 전주대비 5기 감소 등 공급 불안감 확대
- (천연가스) 노르웨이 생산설비의 유지보수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7월 중순 mmBtu당 2달러 중반대에서 7월말 2달러 후반대로 소폭 상승(NYMEX \$2.492/mmBtu, 7/20)
 - 7월 중순 노르웨이 가스 생산시설 Nyhamna의 유지보수 작업 후 재가동으로 가격이 mmBtu당 2달러 중반대로 하락한 이후 노르웨이 생산시설 중 상당량의 추가 유지보수 계획(Troll 유전과 Kollsnes 가스 처리시설 등)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7월말 소폭 상승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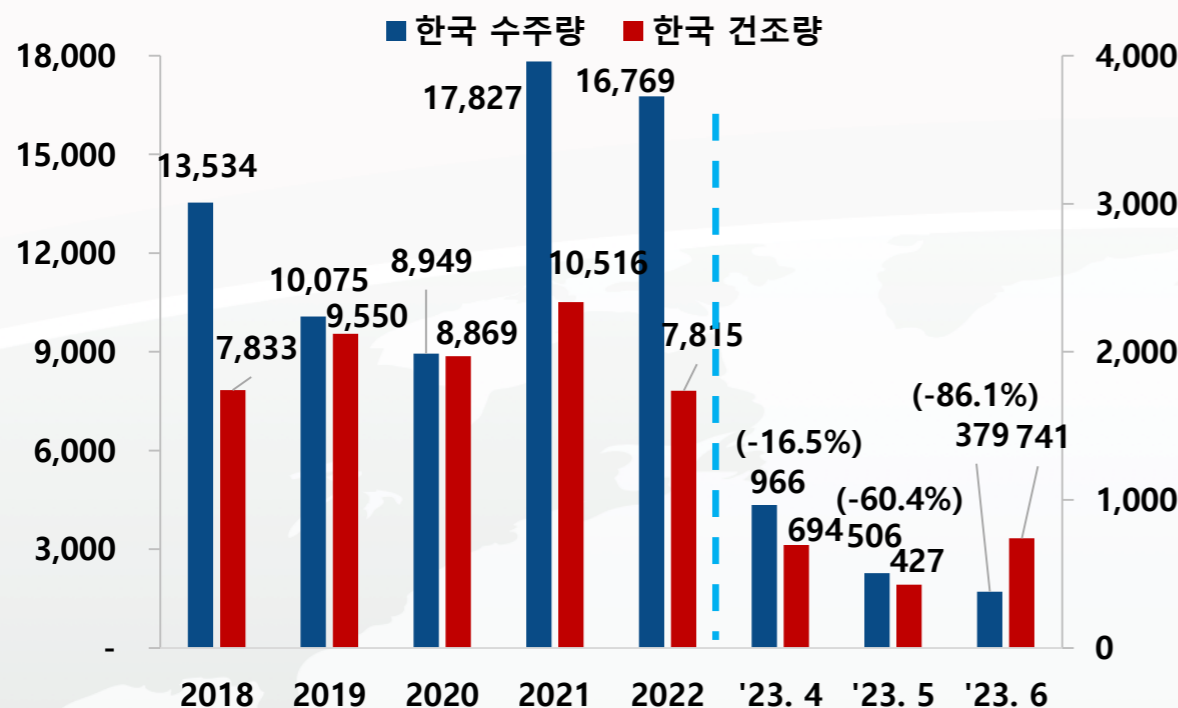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6월 세계 발주량 부진이 지속되며 한국 수주도 크게 악화

- 6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의 발주가 중국에 몰리며 한국의 수주는 크게 부진한 양상을 보임
 - 6월 세계 발주량은 276만CGT(전년동월 대비 $\Delta 48.7\%$), 6월 누적 발주량은 1,781만CGT(전년동기 대비 $\Delta 34.3\%$)
 - 6월 한국 수주량은 38만CGT(전년동월 대비 $\Delta 86.1\%$), 누적 수주량은 516만CGT(전년동기 대비 $\Delta 50.3\%$)
 - 6월 한국 수주액은 9.6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86.8\%$), 누적 수주액은 146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$\Delta 46.7\%$)
 - 6월 발주 시장은 중국-프랑스 협력 논의의 영향 등으로 CMA CGM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요 발주가 중국에 집중됨
 - 한국은 LNG선 4척과 대형 유조선 2척 외에 중형선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지며 부진한 수주 실적을 기록
- 6월 선박 수출은 정상화되며 오랜 만에 활발한 수출 실적 기록
 - 6월 수출액은 24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+98.6\%$)로, 6월 누적 수출액은 92.1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$+11.7\%$)
 - 6월 들어 '21년 이후 호전된 수주의 효과가 반영되며 건조량과 수출액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함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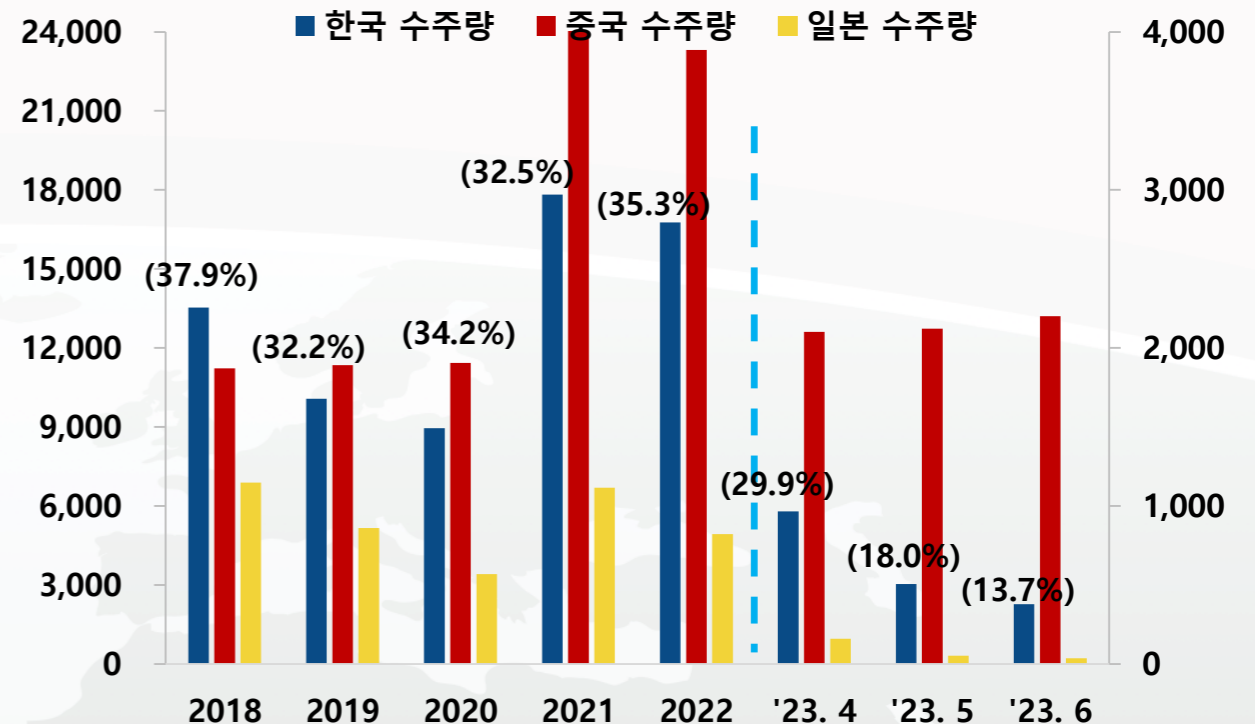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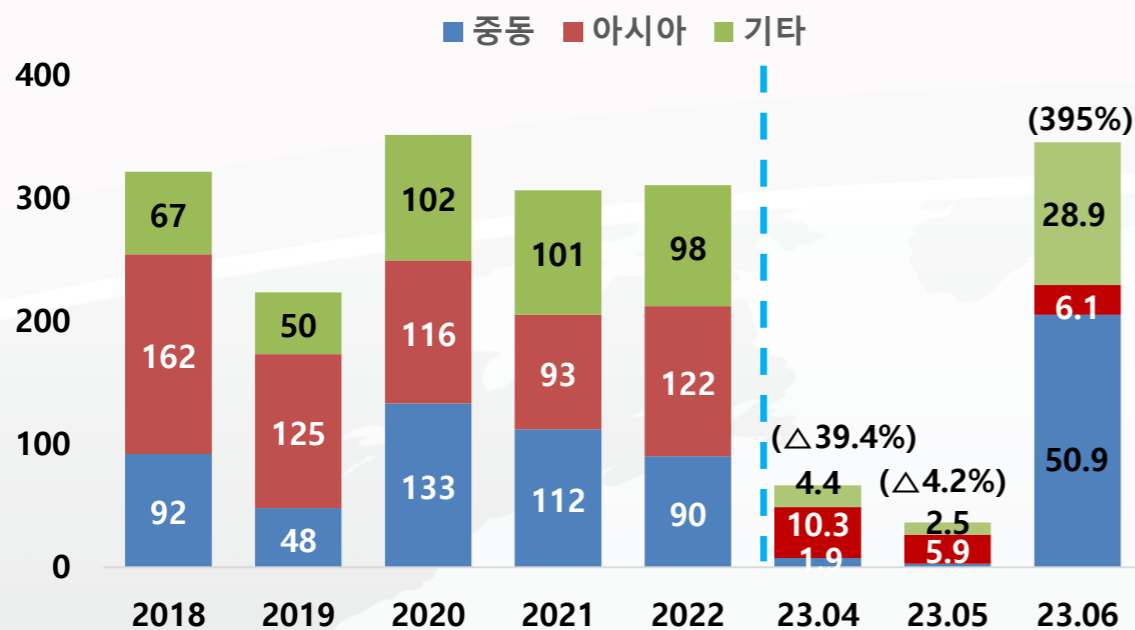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■ 6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395% 증가한 86.2억 달러

- (지역별) 6월 수주액은 중동 50.9억 달러, 북미 27.6억 달러, 아시아 6.1억 달러, 유럽 1.0억 달러 순
 - 현대건설은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 패키지를 수주해 상반기 중동 플랜트 수주 증가에 기여
- (공종별) 플랜트 51.6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51,500%), 건축 33.0억 달러(633%), 토목 0.002억 달러(△99%),
- 6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17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4% 증가,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36% 증가한 66.2억 달러, 아시아 수주액은 34.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40.0% 감소
 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80.9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95.4%), 건축 63.9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110%), 토목 8.4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70.1%)를 기록
-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중동 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,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올해 수주 목표치 350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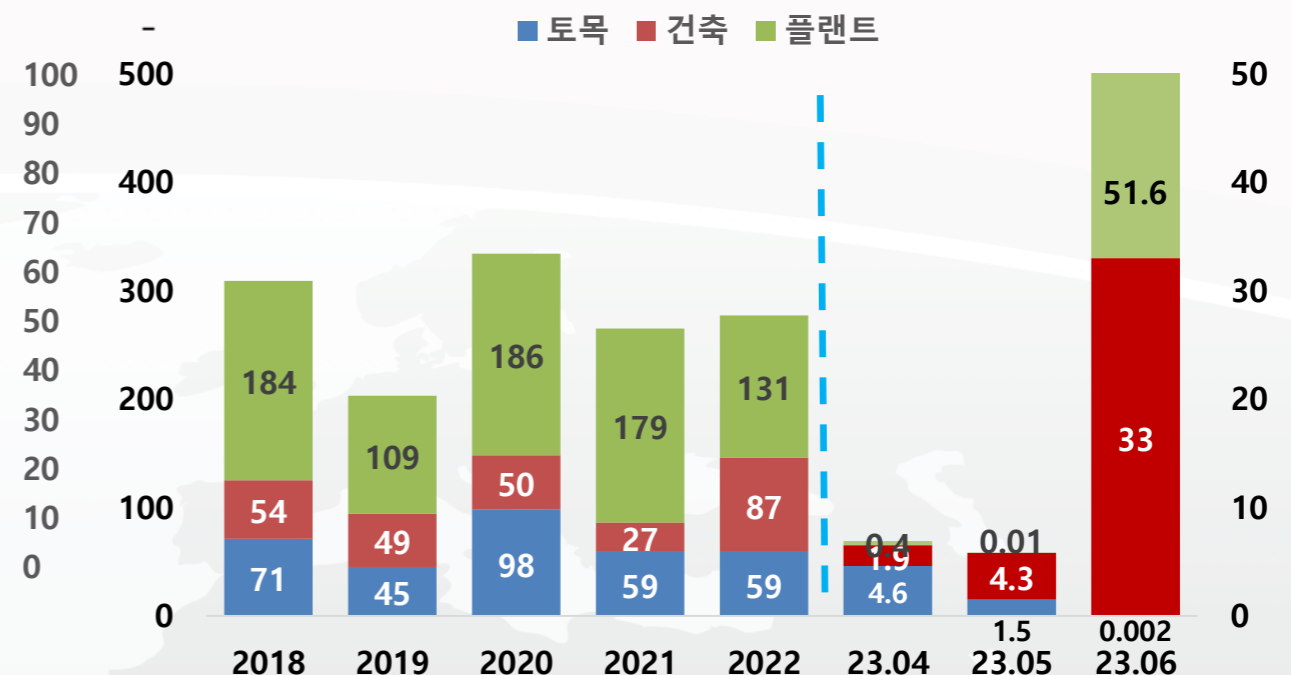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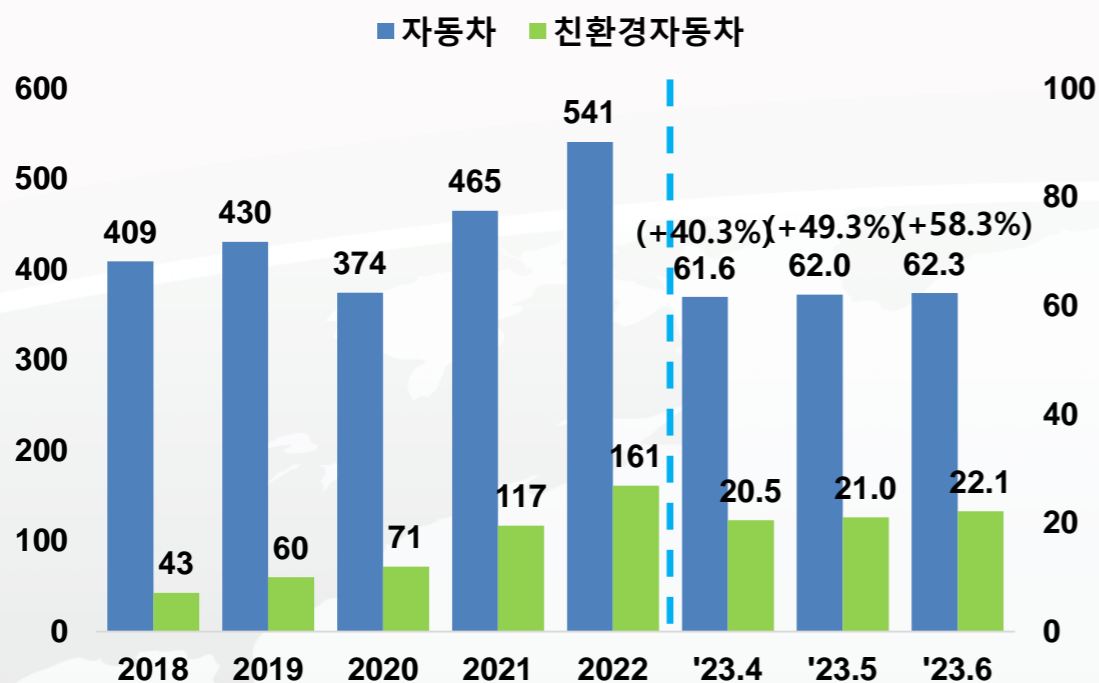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■ 6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62.3억 달러, 19.9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8.3% 증가한 62.3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98.4% 증가한 22.1억 달러 기록
 - SUV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8.3% 증가한 62.3억 달러
 - 순수전기차의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81.0% 증가하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증가 주도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2년 6월) 28.3% → ('23년 4월) 33.3% → ('23년 5월) 33.9% → ('23년 6월) 35.5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3년 6월 대수 기준) : 하이브리드(38.7%), 순수전기차(49.4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1.8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.7% 증가한 19.9억 달러
 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대유럽 수출량 증가 및 자동차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.7% 증가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3년 6월) : 북미(36.2%), 아시아(23.8%), 유럽(22.7%), 중남미(12.6%), 중동(3.7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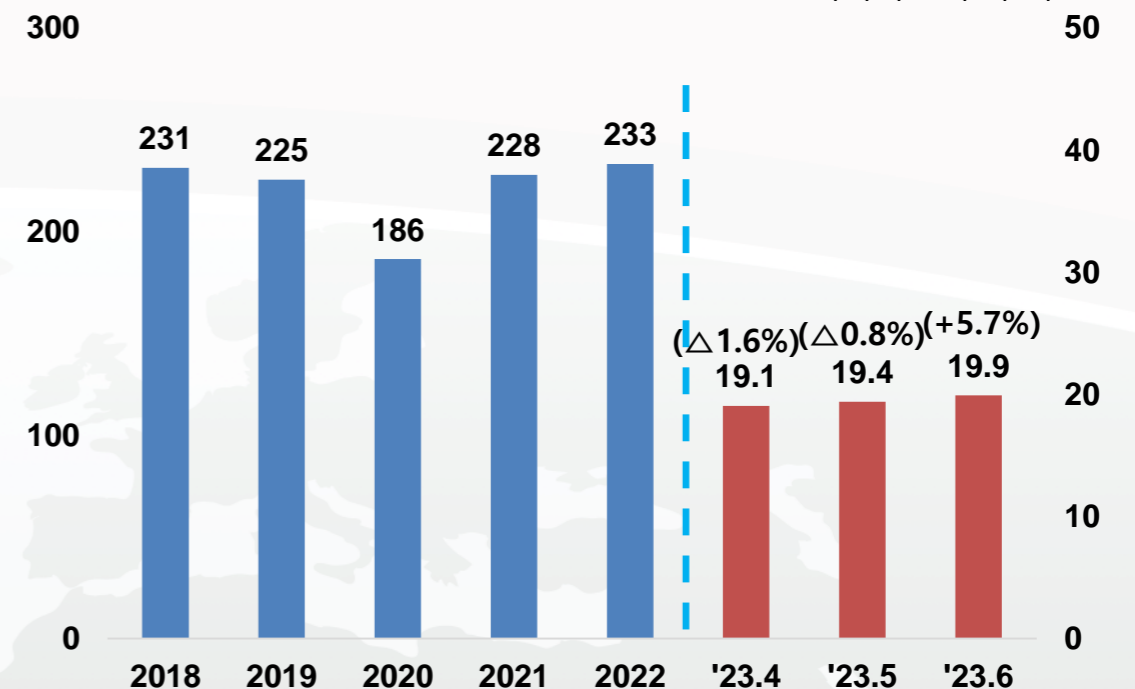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6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27.9%, △11.1% 기록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7.9% 감소한 89.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수요둔화,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8.8% 감소한 47.7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6)2.88 → ('23.3)1.81 → (6)1.36(트렌드포스)

*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 : ('22.5)319.6 → ('23.3)358.0 → (5)345.4(한국은행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.6% 감소한 37.8억 달러 기록

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% 감소한 26.5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% 증가한 11.0억 달러 기록

*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6)89.8 → ('23.3)79.4 → (6)76.9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.1% 감소한 15.9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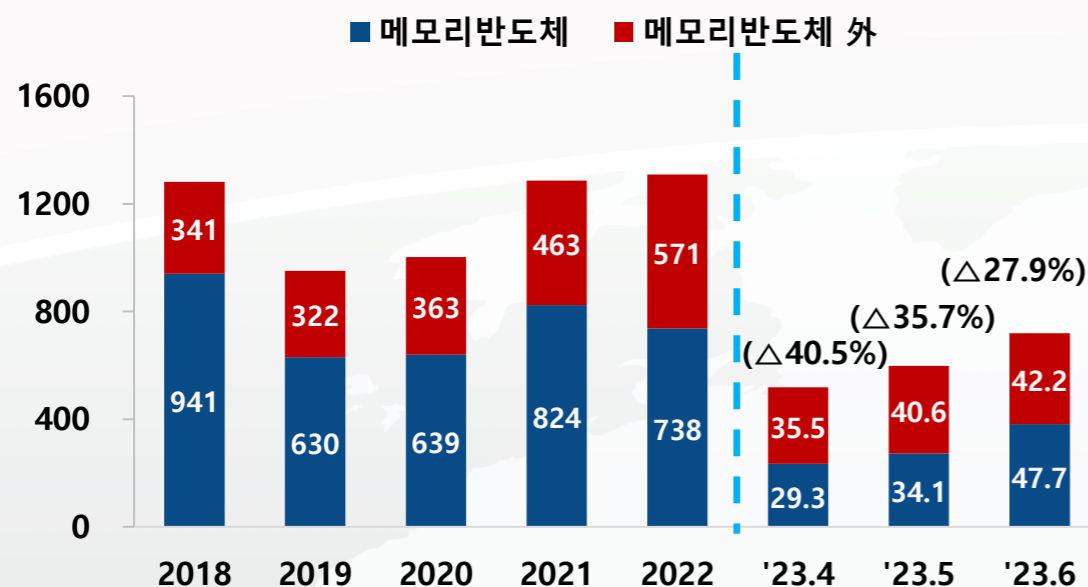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용 패널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.7% 감소한 10.2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6)52.7 → ('23.3)50.7 → (6)50.2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9.5% 감소한 3.5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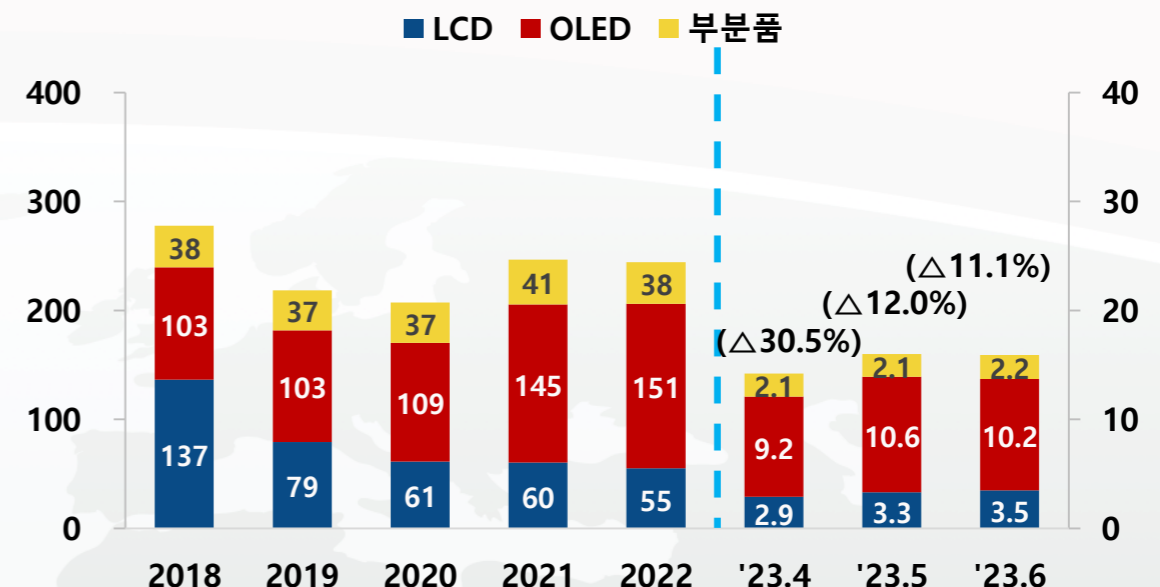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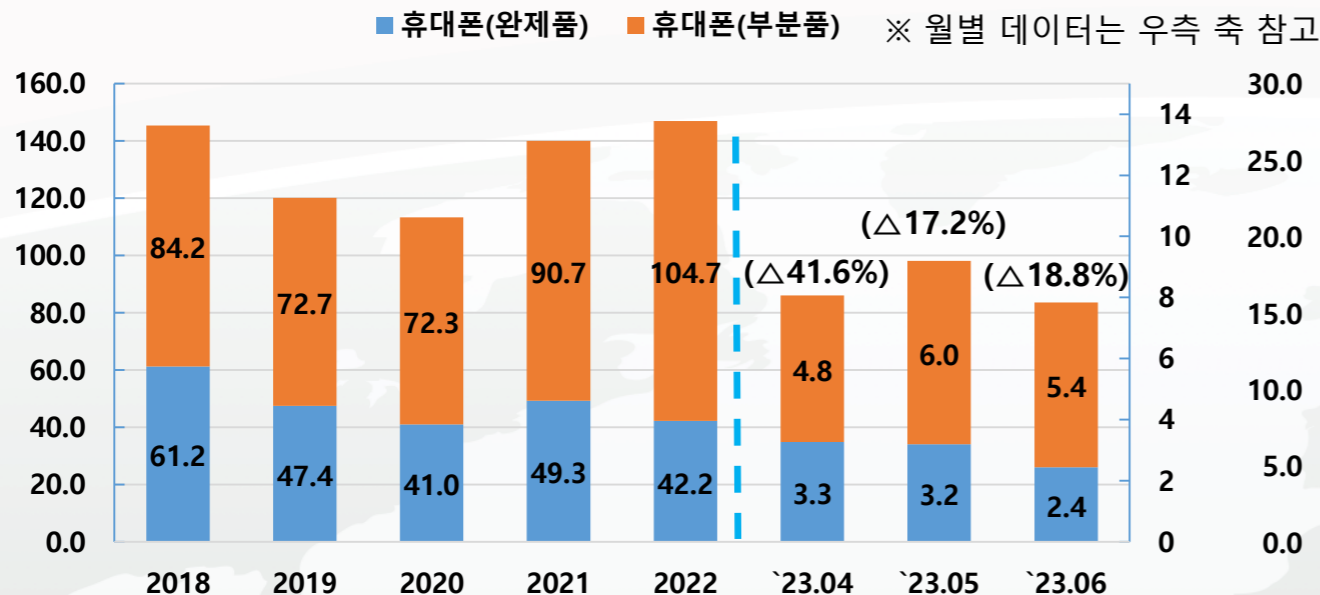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■ 6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8.8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9.6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은 완제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8.8% 감소한 7.8억 달러 기록**
 - (완제품) 유럽을 비롯한 주요 수출지역의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46.9% 감소한 2.4억 달러 기록
 - *휴대폰 주요 수출 지역인 對유럽 6월 수출액은 1.5억 달러로 '22년 6월 수출액인 3.6억 달러 대비 59.6% 감소
 - (부분품) 신제품 출시에 따른 주요 생산기지의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7.0% 증가한 5.4억 달러 기록
 - *중국으로의 휴대폰 및 부분품 수출이 증가세(전년동월 대비 +13.9%)로 전환되며 부분품 수출은 4개월만에 증가 전환
- **통신장비 수출은 중계기·모뎀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9.6% 감소한 1.5억 달러 기록**
 - (기지국 장비) 인도와 미국의 5G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전년동월 대비 74.4% 증가한 0.23억 달러 기록
 - *對인도 기지국 부품 수출액은 1,181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76.0% 증가, 對미국 수출액은 598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40.5% 증가
 - (중계기·모뎀)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17.0% 감소한 1.23억 달러 기록
 - *주요국 중계기·모뎀 및 부품 수출액: 미국(2,387만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52.0%), 베트남(2,865만 달러, +19.6%), 일본(1,422만 달러, +20.6%)

휴대폰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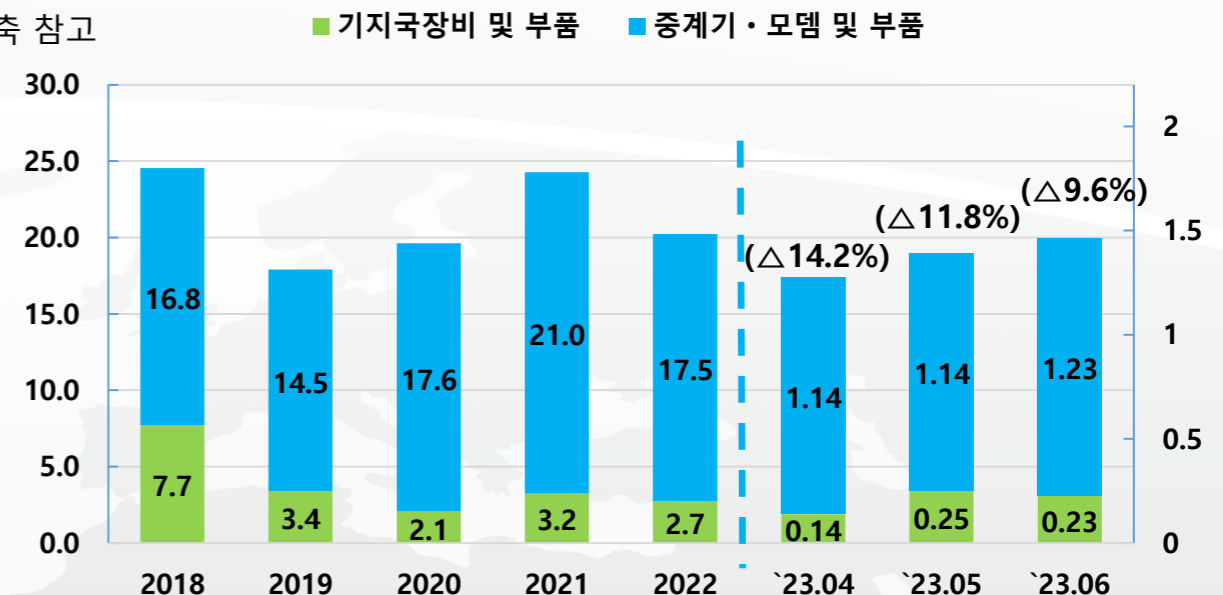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
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